

[성서학 연구논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김수연 ≪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박사과정 / 신약학

οὐκ ἔστιν ἄλλος θεὸς ἢ ἡμεῖς, ὁμοῦς γὰρ ἠγάπησεν ὁ θεὸς τὸν κόσμον  
ὥστε τὸν υἱὸν ἑαυτοῦ μονογενῆ ἔδωκεν, ἵνα  
ὁ πιστεύων εἰς αὐτὸν μὴ ἀποληταί, ἀλλ’  
ζωὴν αἰώνιον, οὐ γὰρ ἀπέστειλεν ὁ θεὸς  
τὸν υἱὸν εἰς τὸν κόσμον ἵνα κρίνη  
κόσμον, ἀλλ’ ἵνα σωθῇ ὁ κόσμος δι’ αὐτόν.

##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김수연 <<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박사과정 / 신약학

### I. 들어가며

본 논문은 로마서의 핵심 논의 주제인 이신칭의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가 도덕적 방탕주의를 수락하고 있는가(혹은 부추기고 있는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윤리적 삶은 구원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논리는 바울 신학 안에서 가능한가? 바울은 이러한 이신칭의 교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 수령(도덕적 방탕)에 대해서 깊이 경계하지 않았는가?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도덕적 타락이며 여기에 이신칭의 교리가 한몫을 담당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죄에 대한 일종의 면죄부가 되어서 구원과 윤리는 상관없는 별개의 문제로 인식되는 위험에 노출되기도 했다. ‘이신칭의를 받는 것’과 실제의 삶 속에서 ‘죄와 싸우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처럼 취급되기도 했다.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통하여 이신칭의를 강조했다. 그러나 바울은 이신칭의만으로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지는 않았다. 로마서에서 이신칭의를 강조함과 동시에 이신칭의가 도덕적 방탕을 허용하는 도구로 악용될 여지를 미연에 방지했다. 즉, 바울은 로마서 자체 안에서 이신칭의와 윤리적 삶의 관계를 이미 재정립해 놓은 것이다.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본문이 바로 로마서 7장 1절-8장 4절이다. 이 본문을 통하여 바울은 기독교로 개

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세밀하게 다루고 있다. 기독교인이 의롭게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롭게 된 이후의 삶의 문제까지 율법과 죄와 인간의 관계를 통하여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로마서 7장은 죄와 율법과 인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로마서 7장에 나타난 '나'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는 인간이다. 그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 그러나 로마서 8장에 나타난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인간이다.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기독교인이 되어 이신칭의를 받는 순간 죄와의 싸움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8장 1-4절에 일어난 변화야말로 바울이 생각하는 기독교인의 윤리적 삶의 토대인 것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후의 삶, 즉 윤리적 실천의 삶을 영위하는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7장과 8장 1-4절, 8장 9-11절이 어떻게 답변하고 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본 논문은 로마서 7장의 신학적 배경 하에 8장 1-4절을 중심으로 이신칭의와 윤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재조명할 것이다.<sup>1)</sup> 이것은 이신칭의 본문 자체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신칭의 신학이 도덕적 타락을 허용하는 도구로 악용될 모든 가능성이 미연에 방지된 신학적 시스템(죄와 율법과 인간과 성령)을 조명하는 것이다. 로마서 안에서 이신칭의는 독단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죄와 율법과 인간과 성령'과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 로마서 7장 1절-8장 4절은 바울의 윤리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토대이다. 필자는 바울의 '죄와 율법과 인간과 성령'에 대한 이해를 재정립함으로써 바울의 이신칭의 신학을 겸허하게 제자리로 돌려보낸다. 그것은 은혜의 큰 잔치다. 그리고 이 은혜 안에는 모든 윤리적 기준을 무너뜨리는 자유방임주의가 아니라 모든 윤리적 기준을 더 바르게 세우는 신학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1) 케제만은 7장과 8장이 한 단위를 이룬다고 지적한다.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의 자유는 율법의 자유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가능한 것 같이 오직 '성령 안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 E. Käsemann, *An die Römer*, 『국제성서주석』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314.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욱 철저하게 아니, 그때야말로 비로소 참된 윤리적 인간이 된다.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해방과 자유는 윤리적 방탕을 허용하기보다는 윤리적 요구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로마서 8장 9-11절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와의 일치와 연합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후의 윤리적 삶의 핵심 동인임을 밝힐 것이다. 이제 로마서 7장에 나타난 ‘죄와 율법과 인간’에 대한 개념을 분석하고 로마서 7장의 신학적 배경 아래 로마서 8장 1-4절을 분석하도록 한다.

## II. ‘죄’와 ‘율법’과 ‘인간’ : 로마서 7:1-25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선포는 기실 율법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죄에 관한 문제이다. 바울의 근본적인 신학적 문제 제기의 출발은 ‘죄’와 ‘인간’의 문제이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롬 6:7). 그런데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되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그것은 율법이었고 회심자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바울의 근본적인 문제는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먼저 바울의 죄에 대한 이해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 1. 죄에 대한 이해

#### 1.1 죄에 대한 유대교적 이해

##### 1.1.1 죄에 대한 유대교적 정의

바울이 유대인이었으며 엄격하게 교육받은 바리새인이었다는 정보에 기반한다면 바울의 회심 전 죄에 대한 이해는 1세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죄에 대한 개념과 유사할 것이다. 따라서 로마서 7장의 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죄에 대한 이해를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evil yeçer(evil inclination)에 대한 유대적 이해는 다음과 같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죄에 대한 이해는 yeçer에 대한 개념에서부터 시작된다. 그것은 good yeçer와 evil yeçer로 나뉘어 진다. 유대 교안에서 evil yeçer는 항상 분노와 화를 통한 감각적인 열정으로부터 탐욕, 사기, 교만과 같은 이기심의 다양한 형태로 생겨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종교적인 불신앙과 우상숭배까지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들은 인간의 본질에 깊이 유입된다. 그러나 이것들의 기원은 인간의 의지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되었다.<sup>2)</sup> 즉, 죄는 전적으로 악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생명과 진화에 필요한 것이라고 이해된 것이다.

### 1.1.2 evil yeçer와의 투쟁

유대교적 사고에서 본다면, 결국 하나님은 evil yeçer를 제거하고 파괴시킬 것이다(겔 36:26). 그리고 그때까지 evil yeçer와의 투쟁은 계속된다. 그러나 그것의 권세 때문에 evil yeçer와의 투쟁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도덕적 임무는 evil yeçer을 제어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은 전적인 자유와 전적인 책임을 가진다. 하나님은 좋은 동력과 경향(good inclination)을 사람 안에 침투시켰다. 그리고 악한 경향(evil inclination)의 치료책으로서 율법을 수여했다. 더욱이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이러한 투쟁에서 도움을 주신다. 율법은 인간의 본성에 있는 이러한 악한 경향에 대한 위대한 치료책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

---

2) Porter, Frank C, "The Yeçer Hara: A Study in the Jewish Doctrine of Sin" *Biblical and Semitic Studies*, (New York: Scribner's, 1902), 93-156. 유대인들은 evil inclination이 육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지 않았다. 유대교에서는 영혼과 육체에 대한 이원론적인 이해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랍비 현자들은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 안에 evil yeçer를 창조하셨다면 그는 또한 그것에 대한 치료책을 창조하셨다. 그것이 율법이다. 만일 너희가 율법에 점령당한다면 너희는 그것의 손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율법을 경시한다면 너는 그것의 권세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하고자 한다면 너희는 그것을 지배할 수 있을 것이다.<sup>3)</sup>

현대 유대교 학자인 뉴스너(Jacob Neusner)는 랍비 현자들의 구전과 성문 토라의 내용 속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고 설명한다. 1) 하나님은 완전하고 공의로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처럼 의지의 힘을 지닌 사람을 만들었다. 2) 그의 교만함 속에서 죄를 지은 인간은 완전한 세계로부터 추방당하고 죽음에게 넘겨졌다. 하나님은 죄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도록 사람에게 토라를 주었다. 3) 겸손하게 토라에 의해 교육받은 사람은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들일 수 있다. 사람이 행할 때에 에덴과 영원한 생명을 회복할 것이다.<sup>4)</sup>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 담당한 역할은 악한 성향에 대한 치료책이었으며 이것을 통하여 에덴과 영원한 생명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 1.2 로마서 7장에 나타난 죄에 대한 이해

### 1.2.1 죄에 대한 바울의 정의

바울은 로마서에서 선한 yeçer의 개념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유대교로

---

3) Porter, Frank C, Porter, Frank C, "The Yecer Hara: A Study in the Jewish Doctrine of Sin" *Biblical and Semitic Studies*, (New York: Scribner's, 1902), 124.

4) Jacob Neusner, *Judaism When Christianity Began: A Survey of Belief and Practice* (Louisville/Lond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2). 188.

부터 기꺼이 evil yeçer의 개념을 빌려 온다. 즉 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 안에서 경험의 문제로 존재하고 있는 evil yeçer의 개념을 사용한 것이다. 인간의 외부에 존재하는 이러한 evil yeçer는 인간과 별개로 존재하는 낯선 힘이다.<sup>5)</sup> 그것은 형이상학적인 죄의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적 이해와 맥을 같이 하여 경험의 문제, 즉 사람들의 삶 속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실체로서 이해되고 있다.<sup>6)</sup> 그리고 이 별개의 힘은 인간의 안에 거주할 수 있으며 '나'에게 악을 행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롬 7:17, 20).

### 1.2.2 죄와의 투쟁

그러나 이러한 죄와의 투쟁에서 인간은 실패하고 있다. 죄는 율법을 악용하여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고 있다(롬 7:8). 계명이 인간에게 이르렀을 때 evil yeçer는 활동하기 시작했다(롬 7:9). 율법이 죄는 아니지만(롬 7:7) 바울은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인간을 속였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바울에게 있어서 더 이상 율법은 evil yeçer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evil yeçer에 의해 이용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evil yeçer에 대한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해결책은 인간이 죄에게 속은 순간 더 이상 그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유대인들은 죄와의 투쟁에서 율법을 가장 큰 치료책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바울은 죄를 의인화시켜 죄가 율법을 악용하였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바울에게 있어서 죄와의 투쟁은 '7장에 한해서는' 불가능한 것이 되어 버린다(7:24).<sup>7)</sup>

5) Porter, Frank C, *The Yeçer Hara*, 113.

6) Furnish, Victor Paul, *Theology and Ethics in Paul*, 김용욱 역, 『바울의 신학과 윤리』(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144.

7) 바울은 8장에서 영을 좇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선포한다.

## 2. 율법에 대한 이해

### 2.1 율법의 본질과 기능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롬 7:11,12,14). 이것이 바로 율법의 본질이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율법의 기능은 변질되었다. 이러한 바울의 이해는 로마서 7장 10절에 잘 나타나 있다. 율법의 기능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었다. 이것이 유대교적 이해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죄 때문에 이제 율법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계명’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율법은 죄를 제어할 수 없다(롬 7:14, 15, 16). 그러나 인간 안에 행사하는 죄를 제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율법의 모든 역할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율법의 선한 본질은 여전히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롬 7:13). 선한 율법이 존재하는 한, 죄는 자신을 감출 수 없고 인간 안에 거하면서 행하는 모든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드러나게 한다. 즉, 죄가 인간 안에 거하는 순간 인간은 생명이 아닌 사망으로 옮겨진다(롬 7:10). 이 문제에 대해서 케제만은 우리에게 상당한 통찰을 제공해 준다. 케제만(Ernst Käsemann)은 바울의 관심이 율법이 가진 원래적 의도를 그것의 현실적 결과와 구별하는 데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죄의 각성 및 그 결과를 모두 실제적인 토라에서 이끌어 내려고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sup>8)</sup>

### 2.2 율법의 시작과 마침(롬 7:1-6): 옛 시대와 새 시대

로마서 7장 안에는 율법의 시작과 율법의 끝이 서술되어 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한다.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는 더 이상 율법이 선하지 않거나 악한 존재로 변해

8) E. Käsemann, 『국제성서주석』, 322.



버렸다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율법은 선한 것이로되 이제 그 효력을 다한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율법의 원래적 기능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 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완수하지 못하고 그 대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계명' 의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바울은 더 이상 율법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바울은 결혼 관계의 비유를 통해서 "남편 생전에"는 남편에게 매이지만 우리가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 곧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롬 7:3-4). 율법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렸다. 케제만이 지적한 대로 바울 칭의의 핵심은 죄와 죽음과 더불어 율법을 옛 시대로 돌린다는 점에 있다.<sup>9)</sup> 폐기된 것은 율법의 저주나 혹은 율법주의 사상의 횡포가 아니다. 그것은 토라 그 자체이다. 로마서 7장 1-6절은 옛 시대에서 새 시대로의 이양을 전제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개념적인 전제로부터 로마서 8장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 3. 인간에 대한 이해

#### 3.1. 로마서 7장의 '나'

로마서 7장의 '나' 가 누구라고 정의하는 것에 의해서 로마서의 이해, 그리고 바울의 선포의 이해는 확연히 달라진다. 쿨멜(W. Kümmel) 이래로 '나' 는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기독교인 이전의 존재를 서술하고 있다고 알려져 왔다. 케제만은 이 통찰을 좀더 한정시켜서 '나' 에 대한 언급이 자서전적인 회고록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sup>10)</sup> 변수가 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9) E. Käsemann, 『국제성서주석』, 307.

10) E. Käsemann, 『국제성서주석』, 316.

수사학적 요인	바울 자신	아담의 그늘 아래 있는 인류 전체
종교적 요인	회심 전의 인간	기독교인

### 3.1.1 바울 : 전체 인류

먼저 ‘나’가 뜻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의 바울 자신이나 혹은 전체 인류를 대표하는 수사학적인 용어로 쓰였느냐의 문제가 있다. 로마서 7장의 ‘나’가 바울 자신을 포함한 전체 인류를 대표하는 수사학적 표현이라는 컴벨의 의견에 반박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바울 자신의 자서전적인 기록은 아니라는 케제만의 의견은 강조할 필요가 있다.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서술할 필요를 느껴서 회고적인 관점에서 기술했다기보다는 죄와 율법과 인간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를 느껴서 수사학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기술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 관점일 것이다. 특별히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점은 바울은 모든 인간이 아담의 그늘 아래 있다고 보았다는 사실이다. 특히 로마서 7장 9-11절은 아담의 경험을 서술하고 있다. 계명이 이르기 전에 살았던 유일한 ‘나’는 아담이다. 결론적으로, 로마서 7장의 ‘나’는 바울을 포함한 전체 인류를 대표하는 수사학적 표현이며 모든 인류는 아담의 그늘 아래 있다.

### 3.1.2 회심 전의 ‘나’ : 기독교인

7장의 ‘나’가 회심 전의 인간인가 혹은 일생토록 유혹 가운데 사는 기독교인인가를 묻는 문제는 계속적인 화두가 되어 왔다. 특히 루터 위에 세워진 개신교 전통에서 이 문제는 다루기 쉽지 않은 문제가 되어 버렸다. 루터와 종교 개혁자들은 7장 7-25절에 나오는 ‘나’를 기독교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루터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의 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7장 7-25절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서는 슈틀마허가 바라본 로마서의 구조적 분석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 슈틀마허는 7장

7절-8장 17절의 전체 구조는 7장의 5절과 6절의 대립으로 말미암아 결정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7장 5절은 7장 7-25절로써 자세히 설명되며 7장 6절은 8장 2-17절로써 주석된다.

7:7-8:17		
7:7-25	→	7:5으로 요약
8:(1)2-17	→	7:6으로 요약

로마서 7장 5-6절은 각각 로마서 7장 7-25절과 8장 1-17절에서 일어난 변화를 요약해 주고 있다. 로마서 7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육신에 있었던 상태’는 7장 7-25절의 회심 전의 ‘나’의 상태이다. 그리고 로마서 7장 6절이 말하고 있는 ‘율법에서 벗어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상태’가 바로 로마서 8장에 나타난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다. 따라서 슈틀마허는 7장의 ‘나’를 기독교인이 아니라 회심 전의 인간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슈틀마허는 7장 13-25절에서 현재 시제의 문체는 유대의 회개 전통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슈틀마허는 여기서 ‘나’가 처한 모든 곤경이 완전한 과거로 취급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그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없이는 언제든지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나’가 처해 있는 곤경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슈틀마허는 여기서 아담적인 ‘나’의 곤경은 극복되었지만 늘 새롭게 존재하고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즉,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 아니라 ‘의로우나 동시에 유혹받을 수 있으며’, 그것도 그가 그리스도에 의해 영광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그러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빌 3:20-21 참조).<sup>11)</sup> 필자는 ‘아담적인 곤경’과 ‘의롭게 된 이후의 유혹’을 구분하는 슈틀마허의 견해에 동

11) P. Stuhlmacher, *Der Brief an die Römer*, 장홍길 역, 『페터 슈틀마허의 로마서 주석』(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2), 202-204.

의한다. 로마서 7장에 나타난 '아담적인 곤경'은 로마서 8장 1-2절을 통하여 극복되었다고 선포되었다. 이제 기독교인은 새로운 곤란에 처하게 되는데 그것은 '의롭게 된 이후의 유혹'과의 싸움이다. 그러나 이 싸움의 양상은 이전과는 다르다. 즉, 이전과 다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과 함께 하는 싸움이 된다. 결론적으로 본 글에서 7장의 '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나'는 수사학적 표현으로서 바울을 포함하여 아담의 그늘 아래 있는 전체 인류를 대표하며 회심 전의 상태에 있는 존재를 의미한다.

### III.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로마서 8:1-4

#### 1. 해방의 선포문(8:2)

지금까지 7장에 나타난 '죄'와 '율법'과 '인간'에 대한 이해를 살펴본다. 7장의 '나'는 율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죄의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인류를 대표한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은 이러한 7장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가지는 정죄의 기능은 효력이 끝났다(8:1). 기독교인이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은 그들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를 담당했기 때문이다(그리스도의 속죄, 8:3 참조). 죄 문제의 해결책이 율법이 아니라는 것은 7장의 논의에서 언급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죄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이다. 로마서 8장 1절은 칭의의 문제를 기독교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즉, 기독교인이 정죄 받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로마서 8장 2-4절은 칭의의 발생 과정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

수 안에 있는 자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는 의미는 단순한 법정적 칭의의 성격만이 아니라 선을 행함이 가능한 인간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7장에서 논의한 용어로 표현하자면 삶에 있어서 evil yeçer을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이 된 것이다. 8장 1절에서 법정적 칭의의 성격이 강조되고 있다면, 8장 3-4절은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 즉 evil yeçer을 극복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윤리적 행함) 삶을 의미하고 있다. 로마서 8장 1-4절은 기독교인의 회심의 과정 안에서 윤리가 어떻게 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를 보여 준다. 바울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8장 2절로 요약하여 선포한다. 그리고 2절에서 선포된 해방의 의미는 1절과 3-4절에서 설명되고 있다.

1.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인간을 해방하였다(8:2). ⇒ 해방의 선포문
2.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8:1). ⇒ 칭의
3.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결과 생명의 성령의 법아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8:3-4). ⇒ 선을 행하는 삶

칭의의 발생은 기독교인이 의롭게 되었다는 법정적 의미와 동시에 윤리적 의미를 담보하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칭의를 가능하게 함(8:1)과 동시에 행함에 있어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8:3-4). 따라서 8장 2절에서 선포된 구원의 직설법 안에는 이미 윤리적 의미가 통합적으로 포함되어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sup>12)</sup> 이

12) W. Schrage, *Ethik des Neuen Testaments* (Göttingen, 1982.) Translated by D. E. Green, *The Ethics of the New Testament* (Edinburgh: T.&T. Clark, 1988), 170-71.

제 로마서 8장 3-4절에 나타난 율법과 성령의 관계를 구약적 배경 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 2. 율법과 성령에 대한 이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겔 36:26-27)

에스겔 36장 27절의 배경 하에서 로마서 8장 3-4절을 해석해야 한다는 슈틀마허의 지적은 타당하다. 이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는 것은 새 영이다.<sup>13)</sup> 김세운은 조금 더 상세하게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김세운은 에스겔 36장 26-27절의 본문과 로마서 8장 3-4절의 본문을 비교하고 있다. 즉, 구속이라는 공통주제, 성령에 대한 공통적 언급, 공통적 핵심 단어 *δικαίωμα*(요구)<sup>14)</sup>, 행한다(*πορεύομαι*와 *περιπατεῖν*)라는 공통적 개념, 그리고 *φυλάσσειν καὶ ποιεῖν*(지키다, 행하다)와 *πληποῦν*(이루다) 사이의 병행을 지적함으로써 에스겔과 로마서의 유비를 강조하고 있다. 김세운에 의하면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을 통하여 에스겔 36장 26-27절을 새롭게 표현함으로써 근본적인 진술을 제시한다. 즉, 바울이 말하는 성령-육체 간의 대조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에스겔 36장 26-27절 및 관련 본문들(겔 11:19-20; 렘 31:31-34)에 근거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sup>15)</sup>

13) P. Stuhlmacher, 『패터 슈틀마허의 로마서 주석』, 207.

14) 김세운은 칠십인역 에스겔 36장 27절과 병행 구절인 칠십인역 에스겔 11장 20절을 참조하여 '내 율례와 규례'가 '율법의 요구'와 동의어로 여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세운, *Paul and the New Perspective*, 정옥배 역, 『바울 신학과 새 관점』(서울: 두란노, 2002), 260.

15) 김세운, 『바울 신학과 새 관점』, 259-60.

evil yeçer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기독교인은 evil yeçer를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를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었다면 evil yeçer의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들로 하여금 evil yeçer를 대적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율법의 요구는 더 이상 죄의 방해 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에스겔의 본문 이해에 비추어 볼 때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이다. 이러한 율법과 성령의 관계는 변증법적인 이해를 필요로 한다.

1. 율법은 evil yeçer에 의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7:10).
2. 그러나 율법은 죄에게 악용되어 사망에 이르는 계명이 되었다(7:11).
3. 율법의 정죄는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인하여 끝났다(8:1-3).
4. 성령은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8:4)
5. 결론적으로, evil yeçer에 대한 해결책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성령이다(8:2)

그러나 바울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한 가지 제한 조건을 남겨둔다. 즉,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바울은 다음 단락에서 이러한 육신과 성령의 대조를 논증하고 있다. 바울은 슈틀마허와 김세운이 지적했듯이 구약 전승 하에서 8장 4절을 통해 율법과 성령의 관계를 변증법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 3.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윤리적 고민의 변화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는 회심 전의 인간을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는

회심 후의 기독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바울에게서는 분명히 죄와 사망의 법아래 있는 인간과 생명의 성령의 법아래 있는 인간이 구별되고 있다. 그것은 로마서 7장 5절의 육신에 있는 인간과 로마서 7장 6절의 율법에서 벗어난 인간이 구분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본 글에서는 7장의 ‘나’가 기독교인이 아닌 ‘아담의 그늘 아래 있는 모든 인류’라고 전제하고 있다. 만일 7장의 ‘나’가 기독교인이라면 바울의 로마서에 나타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기쁨은 근거를 잃은 공허한 외침이 되어 버린다. 7장의 ‘나’가 기독교인이라면 7장과 8장의 바울의 진술은 일관성을 상실하고 모순에 처해지게 된다. 7장의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조차 없는 암울한 실패와 절망에 사로잡힌 존재이다. 만일 7장의 ‘나’가 기독교인이라면 넘치는 은혜와 승리의 개가는 어디에서 표류하고 있는가?

그러나 본문의 논리에 따르면 고민의 원인은 달라진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 하로 이동한 순간 인간에게는 윤리적 고민의 원인이 변화된다. 회심 전의 인간이 가진 문제는 죄의 권세에 대해 무능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죄의 권세를 무효화시킬 수 없었다. 죄의 권세가 무효화되지 않는다면 율법의 능력은 무엇인가? 죄를 드러나게 할 뿐이다. 죄는 율법을 틈타 도리어 나를 속이고 있다. 그러나 죄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는 이루어진다. 더 이상 죄는 율법으로 나를 속일 수 없다(롬 7:8). 죄의 권세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 엄청난 해방의 선언이 바로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해방의 선언이다(롬 8:2). 모든 율법의 정신,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농축된 율법의 요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기독교인이 되기 이전의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다. 그것은 곤고한 상태였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 인간은 전혀 다른 질의 윤리적 고민을 요구받는다(8:12-13). 8장 12-13절은 이러한 윤리적 고민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살기 위한 윤리적 싸움이 남아 있는 것이다. 바울은 이러한 윤리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그리스도와의 일치와 연합임을 8:9-11을 통해서 제시해 주고 있다.

#### IV. 그리스도와의 일치와 연합: 로마서 8:9-11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른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일치와 연합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리스도와의 일치와 연합을 단순히 윤리적 의미로 제한시킬 수 없다는 케제만의 지적은 타당해 보인다.<sup>16)</sup>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일치와 연합 안에 윤리적 삶을 위한 전제, 혹은 윤리적 삶의 핵심 열쇠가 들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로마서 8장 9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람, 즉 그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는 사람은 몸은 죄로 죽은 것이나 영(기독교인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다(8:10). 먼저 로마서 8장 10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8:10)

여기서 *σάρξ*가 아니라 *σῶμα*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여기서 사용된 *σῶμα*는 영과 대립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기보다는 전체로서의 인간의 육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은 개인이나 자아를 대표하며 자아는 육체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몸으로부터의 구속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구속을 기대해야 한다(8:11,

16) E. Käsemann, 『국제성서주석』, 365.

23). 이러한 *σῶμα*, 즉 인간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과 같다. 이것은 로마서 6장 11절의 이해와 맥을 같이한다. 그리스도와 의 연합의 관점에서 이해할 때 가능한 문맥이라는 것이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몸<sup>17)</sup>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실을 상기시킨다.<sup>18)</sup> 사도 바울은 6장 11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점에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는 죽은 것과 같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표현은 ‘몸’을 악한 것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그리스도의 속죄에 참여한다는 의미의 강조로 받아들여야 한다. 슈라게는 그리스도께서 구체적으로 육체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은 육체를 악한 것으로 규정하는 모든 가능성을 막아 준다고 지적한다. 주님은 구체적으로 육체와 연합되었다. 육체는 그리스도가 현재 세계에서 통치권을 행사한 장소이다. 바로 그곳이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며 그리스도가 그의 주권과 주되심을 단언하는 자리이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방종할 수 없는 이유이다. 바울이 8장 10절 전반절에서 그리스도의 속죄에 참여함을 이야기했다면 8장 11절에서는 부활에 참여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8:11)”는 표현은 예수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 바울은 8장 9-11절을 통하여 기독교인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증한다.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일치와 연합이야말로 우리의 윤리적 삶의 동인이요 동력인 것이다.

17) W. Schrage, *Ethik des Neuen Testaments*, 217-19.

18) 로마서 6장 6절에서도 죄의 몸 즉 *σῶμα*가 죽었다고 표현되어 있다.

## V. 결 론

이신칭의의 신학 안에 도덕적 방탕주의를 용인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는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후의 삶은 전적으로 각 개인의 의지와 도덕성에만 맡겨지는 것인가? 성경에 명시된 높은 도덕적 이상은 단지 이상일 뿐인가? 필자는 본 글에서 7장의 번뇌가 기독교인이 가진 윤리적 고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논증하였다. 그것은 회심 전의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번뇌이다. 따라서 성경의 윤리적 요구를 행하지 못하는 근거를 더 이상 7장에서 끌어낼 수 없다. 그것은 기독교인이 되기 이전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함’ 이기 때문이다. 7장의 ‘나’ 는 성경의 윤리적 요구를 행할 수 없는 존재다(7:21). 그러나 이제 8장에서 ‘나’ 는 윤리적 요구를 행할 수 있게 되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순간 더 이상 죄에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 죄에 승리할 있는 존재로 변화되기 때문이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는 누구나 의의 종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그렇다면 이러한 해방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의 삶에 여전히 죄악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각 개인의 의지박약 때문인가?

로마서 7-8장의 관계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로마서 7-8장에서는 칭의와 윤리를 분리시키지 않는다. 칭의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성령 안에서 윤리적 삶이 가능하다. 이들은 변증법적으로 서로 관련되어 있다. 성경은 윤리적 요구가 완성되는 책임을 개인에게 맡겨 놓지 않았다. 그것은 그리스도와와의 일치와 연합에 달려 있는 것이다. 로마서 7장에 나타난 ‘나’ 에 대한 비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것은 회심 이전의 인간에게 주어졌던 고민일 뿐이다.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괴로워해야 하는 것은 성경의 윤리적 요구를 행치 못하는 나 자신이 아니라 그것을 행할 만큼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나 자신이라는 사실이

다. 내가 윤리적 명제에서 실패하는 모든 순간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하는 순간이다. 그것은 나의 실패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패이다. 포도나무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요 15장).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에 대해서 열매를 바랄 수 없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기독교인에게는 권세가 주어졌다. 그것은 원하지 않는 죄를 계속해서 행하는 우울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회제도의 ‘악’마저 전복할 수 있을 만큼 폭발적인 것이다. 성경의 모든 윤리적 요구는 자기 절제와 금욕적 훈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sup>19)</sup> 로마서 7장의 고민은 죄에 저항할 수 없는 ‘나’에 대한 고민이다. 그러나 이신칭의된 자라면 더 이상 그러한 고민은 필요하지 않다.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한 고민과 노력인 것이다. 바로 내 안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 김수연 숙명여자대학교(B.A.)를 나와 장로회신학대학교(M.Div., Th.M.)에서 공부했다.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박사과정 신약학 전공 중에 있다.

19) 슈라게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투쟁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 통제는 오직 주님의 힘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그러나 금욕과 절제와 자기 훈련이 그리스도인에게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성향들은 점진적으로 발전하여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이 모든 것의 목적이 자기 향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W. Schrage, *Ethik des Neuen Testaments*, 220-22.